

法友

四十一

진리의 벗 제309호

2019.04



문사수법회



선남자여,
온갖 지혜의 지혜를 성취하려거든,
결단코 선지식(善知識)을 찾아야 하느니라

— 『화엄경』

시절인연	02	조건보다 더한 착각이 또 있을까
부처와 부처끼리	06	부처님을 따라 배운다는 것은 • 會主 한탐
진리로 피어나는 삶	16	일념이 곧 부처님 • 여여법사
명심법문	26	염불을 권합니다
비유의 재발견	29	돼지는 왜 돼지가 되었을까(2) • 정신법사
경전강좌	42	스스로 윤회한다 • 여여법사
함께 따라 듣는다	49	무엇을 얻었던 말인가 • 심우도(4)
	55	문사수 청문기(2) • 길상화
발원합니다	62	가정 발원문
삶의 향기	64	밝고 맑게 • 성원 박부현
	66	푸른 하늘 • 신지 김동숙
	68	지금 할 수 있는 일 • 편지
염불문답	70	생활 속에서 염불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73	편집후기
	75	법회소식



【표지설명】 이 세상에 나투신 부처님생명(미얀마 바간 쉼지곤)

월간 진리의 빛, 법우 _ 2019년 4월 309호

발행인_ 김태영 | 편집고문_ 객인규 | 편집인_ 안은경 | 편집위원_ 김동숙 김동희 김석순 김혜숙 박부현 조은영

발행처_ 문사수법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무원로 6 무원빌딩 8층 전화 031)966-3581~2 <http://www.munsasu.org>

편집 및 디자인_ 도서출판 법조음 (02)2279-2343

조건보다 더한 착각이 또 있을까

남자, 여자라는 성별(性別)도 떼고,
높고 낮은 사회적인 지위도 떼고,
노소간(老少間) 나이 차이도 떼고,
과연 나를 주장할 수 있겠는가?

굳이 깊이 살필 것도 없으니,
부모가 나를 수시로 들볶는다고,
자식이 무척이나 속을 썩인다고,
상관의 횡포를 견딜 수 없다고,
조건화된 나를 주장하기 바쁘는데,
이렇게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여간해서 스스로 돌아보지 않고,
남들의 평가에만 목을 매면,
일종의 중독(中毒)된 상태라.

사장자리에 있던 사람이 물러나면,
사장이라는 직책도 없어지는가?
공무원으로 살던 사람이 물러나면,
공무원이란 직업도 사라지는가?

이처럼 따르는 게 세상 조건이고,
스스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나로 불리는 인물로 행세하니,
그렇게 조건을 세상에서 받기에,
내가 생산한 것은 하나도 없네.

그 누구든 혼자 태어나자마자
아무도 자기 이름을 부르지 않지만,
부모님이든 할아버지든 불러주었고,
살아온 세월의 깊이와 넓이만큼,
동일시하며 익숙한 채 지내다보니,
그냥 나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문노니, 계급장 떼고 한판 붙자던데,
모든 조건 떼고 나면, 남는 게 누굴까?
조건이 아닌, 다만 부처님생명뿐입니다.

나무아미타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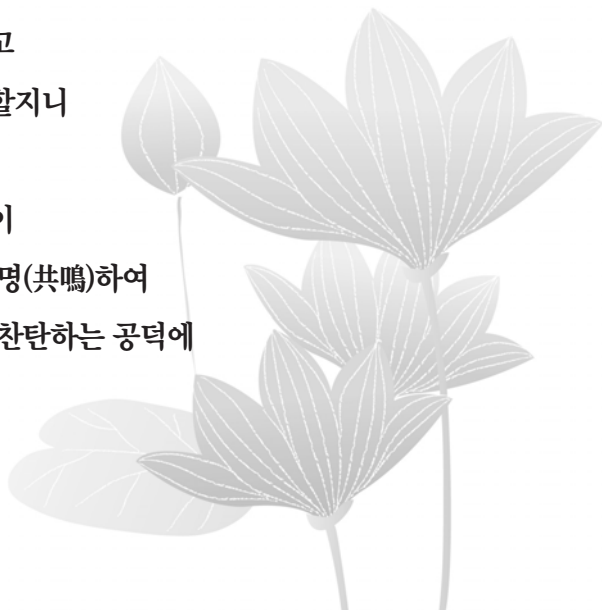
여여如如 합장

진리의 말씀 『법구경_{法句經}』 강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명징하고 그윽한 노래로 다가오는
진리의 말씀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고
혼탁한 세상을 밝혀주는
생명의 노래에
귀기울여 듣고
입맞춰 노래할지니

생명의 합창이
온 법계에 공명(共鳴)하여
오직 생명을 찬탄하는 공덕에
함께 하소서!



문사수 경전학당 2019년 상반기 강좌 개강

진리의 말씀, 법구경 法句經

강사 여여법사(문사수법회 대표법사)

장소 문사수법회 전법원

개강일 중앙전법원 2019년 3월 5일(화) 오전반 10시30분 / 저녁반 7시30분
대전전법원 2019년 3월 8일(금) 오후 7시30분
(정진원 및 기타 지역은 통신반 안내 참조)

동참비 18만원(교재비 별도)
신한은행 100-023-865114 (사)문사수불교문화원

문의 문사수 경전학당 교학처 031)966-3581
담당법사 범정(梵正) 010-9252-5055, mssac@munsasu.org

【통신반 안내】

- 시공간적인 제약으로 출석반에 동참할 수 없는 분을 위해 운영됩니다.
-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동영상으로 공부합니다.
- 여여법사님과 정기적인 면담을 통해 공부내용을 점검받습니다.

【장학보(獎學寶) 안내】

- 장학보는 경전학당 전용 장학후원보시 재단입니다.
 - 누구나 장학보 후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경전학당 동참비를 차등 후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장학보 지원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경전학당 담당법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 경전학당 장학보 후원보시에 동참 발원하시는 분은 보시봉투에 '경전학당 장학보 보시'를 표기하여 보시함에 넣어주시거나, 아래 계좌에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학보 계좌 _ 국민은행 650702-01-371287 (예금주: 박기범)

문사수 경전학당

부처님을 따라 배운다는 것은

법문 | 會主 한담

오늘은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운다는 것’에 대해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참생명은 본래부터 법신(法身)생명이기 때문에 부처님이라서 더 함도 없고 중생이라서 덜함도 없습니다. 그러나 무량공덕인 그 법신생명을 내어 쓰는 능력에서는 차별이 엄연합니다. 같은 생명을 살고 있으면서 어떤 이는 부처 노릇하고, 어떤 이는 지옥에서 괴로움을 받으며 지내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한 차별은 각자가 지은 업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어두운 업(業)을 지었을 때는 생명능력이 극도로 제한받게 되고, 반대로 법신생명의 본래가치를 드러내는 업(善業)을 지었을 때 생명능력은 실로 무한한 것입니다.

우리는 괴로움에서 벗어나 즐거움을 누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벗어나고자 하는 괴로움은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스스로 지은 업밖에는 따로 그 원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괴로움을 벗어나고자 한다면 우리의 업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것이 곧 수행(修行)입니다. ‘수행’이란 우리의 행, 곧 일상생활을 수정하



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삶의 방식을 바뀌기는 것이지요.

그러한 수행의 목표 내지는 삶의 지향이 부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부처님께서 수행하신 바를 그대로 배우고 따라 행하면 부처님생명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발심(發心)을 배웁니다

발심이란 부처님생명을 살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즉 지금은 중생으로 살고 있지만, 이 중생의 삶이란 괴로움 뿐이라는 것을 알아 중생의 삶을 버리고 기필코 부처 되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가 불자(佛子)가 되는 첫걸음입니다. 발심하지 않고 부처 되는 법은 있을 수 없습니다. 발심의 바탕 위에서 불교의 모든 수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발심해서 법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모처럼 발심해서 법회에 나왔으면서도, 중생 노릇 그만두고 부처 노릇할 생각은 하지 않고, 중생으로 살아가는데 좀 편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가치를 전도(顛

발심하여 기필코 가고야 말겠다는 굳은 의지가 있다면,
유혹은 정진의 힘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倒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심하게 되면 ‘중생으로서의 나’는 죽습니다. ‘중생의 나는 죽고 부처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무아미타불입니다. 발심해서 꼭 부처를 실현하겠다는 말과 나무아미타불은 같은 의미입니다.

다음에는 정진(精進)입니다

발심이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성취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라면, 정진은 그 목표를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목표를 향해서 용맹스럽게 나아가는 것이 정진입니다.

이와 같이 정진하려면 안과 밖에서 나타나는 장애를 이겨내야 합니다.

안에서 나타나는 장애는 의심과 게으름입니다. ‘이 길을 가서 꼭 목표가 성취될까?’ 하는 의심과, 그 길을 가는 데에 따르는 고난이 견디기 어려워서 정진을 포기하는 것이 게으름입니다.

밖에서 나타나는 장애는 여러 가지의 유혹입니다. 본능적인 욕망을 자극하는 유혹도 있고 또는 발심 자체를 포기하게 하는 유혹도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유혹이 모두 철저한 발심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일단 발심하여 기필코 가고야 말겠다는 굳건한 의지가 서있다면, 이러한 유혹들은 용맹스러운 정진의 힘으로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용맹심이 있을 때 안팎의 장애는 오히려 발심을 더욱더 굳건하게 해주는 고마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석가모니부처님보다도 미륵보살이 발심한 시기가 먼저라는 이야기가 전해

져 내려옵니다. 그러나 석가모니부처님께서 용맹스러운 정진을 하셨기에 먼저 부처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정진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고 꾸준히 나아가면 꼭 성불하게 됩니다.

셋째는 위법망구(爲法忘軀)의 정신을 배웁니다

법을 구하기 위하여서는 육신을 가볍게 보는 것입니다. 법만이 절대가치입니다. 그 절대가치인 법을 위해서는 육신의 가치를 무시해 버리는 정신을 배우는 것입니다. 석가모니부처님의 본생담(本生譚)에 나오는 여러 가지의 가르침은 위법망구의 정신을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설산동자가 단지 여덟 글자 법문을 듣기 위해서 몸과 목숨을 바치신 이야기 라든지, 대승의 법문을 배우기 위하여 왕위를 버리고 출가하여 포악한 스승을 모시고 공부한 이야기 등에서, 우리는 법을 위해서 몸을 버렸던 구법 정신을 배울 수 있습니다.

넷째는 자비행(慈悲行)을 배웁니다

부처를 이루기로 마음을 내고 부지런히 용맹정진하면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모든 중생에 대한 자비심입니다. 부처 된다는 것은 깨달음을 의미하는데, 이 깨달음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일체중생이 자기의 생명내용임이 밝혀졌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체중생이 자기의 생명내용이므로 모든 중생의 괴로움은 곧 자기의 괴로움이 됩니다.

부처를 이루는 공부는 자비심을 키우는 연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들과 동떨어져서 고고하게 자기만 밝아지면 된다는 정진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석가모니부처님도 중생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기꺼이 버리신 적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자비심 때문입니다.



일체중생을언제나가볍게보아서는안됩니다.
누구든공경하는마음으로살아가는것을
부처님께배웁니다



즉, 부처님이 부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지혜와 자비가 함께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덕과 지혜를 구축하신 부처님이라고 예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태양이 밝기도 하면서 따뜻하기도 한 것처럼 부처님께서는 지혜와 자비가 같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진을 통해 지혜를 밝게 한다는 말은, 몸과 목숨을 바쳐서 이 세상 사람 전부를 괴로움에서 건져내는데 정진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든 말든 공부만 하면 된다는 것은 이성만 발전시킨 공부입니다. 그것은 지혜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감은 곧 모든 중생의 행복에 도움이 되는 것임은 말할 것도 없고, 나아가서는 남을 살리기 위하여서 기꺼이 나를 버리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보시행(布施行)을 의미합니다. 나에게 있는 것으로 남들의 필요함을 채워줄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주면서 사는 것이지요. 우리도 남에게 뭔가 줄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내가 먹을 만큼은 남기고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 주는 모양을 보여도 마음속에는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보시가 되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몸과 목숨까지도 보시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다운 보시입니다. 몸과 목숨을 보시한다는 말은 ‘너와 나 사이엔 울타리가 없어. 그런데

선남자여,
또한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운다’는 것은,
이 사바세계의 비로자나부처님께서 처음 발심하실
때로부터, 정진하여 물러나지 아니하고 말로 다할
수 없는 몸과 목숨을 보시하시되,
가죽을 벗겨 종이를 삼고, 뼈를 깨어 붓을 삼고, 피
를 뱀아 먹물을 삼아, 경전 쓰기를 수미산만큼 하시
면서도,
법을 소중히 여기는 깨닭에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
으시거늘,
하물며 어찌 왕위나 성읍이나 촌락이나 궁전이나
정원이나 산림 등의 모든 소유라! _ 『보현행원품』

여태까지 어리석게
도 남이라고 보았
고, 너와 따로 떨어
져 있는 나라고 보
았구나. 그러나 알
고 보니 너와 나는
한생명을 살고 있
다. 따라서 네가 괴
롭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 괴로움일
수밖에 없으니, 나

에게 있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주더라도 몸과 목숨을 보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내 몸과 목숨 자리를 남에게 주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보시하는
행위 자체가 이미 몸과 목숨을 보시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나를 위한 계산
은 다 내어버리고 일체 모든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만 산다는 것입니다. 그
러므로 우리 불자들의 수행이란 바로 이 보시행에 중심을 둔다는 것을 잊어
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섯째는 중생들에 대한 공경심(恭敬心)을 배웁니다

『법화경』 「상불경보살품」에서 가르쳐주신 대로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일체
중생을 언제나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상불경보살은 누구를 만나든,
그의 신분이 천하거나 높거나 재산이 많거나 적거나 존경을 받는 이거나 사
회적으로 몹쓸 짓을 저질렀거나 가리지 않고 예배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아직 불법(佛法) 문중에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나아가서는 용서 못

할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모든 중생은 결국 성불하고 만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의 크나큰 원력에 의해 모든 중생은 빠짐없이 성불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중생은 곧 미래의 부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채 현재의 모습으로 평가해서, 혹은 얕잡아 보고, 혹은 미워하고, 혹은 저주하는 등의 마음을 갖게 된다면 큰 잘못입니다. 미래의 부처로 결정된 사람이라면 그는 지금 보살입니다. 그러므로 일체중생을 보살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를 대하든 공경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부처님에게 배웁니다.

여섯째는 원력(願力)을 배웁니다

부처님께서는 온 우주 법계의 일체중생을 남김없이 성불토록 하시는 원을 세우셨습니다. 이러한 원은 사홍서원(四弘誓願)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중생을 모두 건진다는 원입니다. 중생들의 성불(成佛)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부처님의 성불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용맹정진이라는 것이 무조건 절에 앉아서 참선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전법하는 것도 용맹정진입니다. 전법하지 않는 깨달음은 없습니다. 전법해서 이 세상의 모든 중생을 성불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행도 이러한 원력이 있을 때 비로소 진실한 수행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비록 제도하지 못했더라도 남부터 제도토록 하겠다(自未得度 先度他)’라는 원, 이러한 원을 부처님으로부터 배워 원의 성취를 위해 영원히 정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리 편집부

오늘 부처님은 온 몸에서

기쁨이 넘치시고

부처님 찬탄 중

일념^一이 곧 부처님

법문 | 여여(如如)법사

반복

일반적으로 견성(見性)을 특별한 것이라고 여깁니다만, 매 순간 자기의 참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아는 게 견성입니다. 너무나 위대하고 놀랍지 않을까? 우리는 자꾸만 과거의 고정된 ‘나’ 를 반복하면서, 그 지속을 ‘나’ 라고 생각합니다.

살아온 내력인 집안 환경이나 다녔던 학교, 지역,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삶에 대한 해석을 달리합니다. 그럼 그 밑바탕은 무엇입니까? 주체로서의 ‘내가 있다’ 는 전제를 갖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전제하에 내가 살고, 내가 사업하고, 내가 공부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곧 ‘나’ 의 반복인 윤회입니다.

분명한 것은 ‘어떠 현상도 항상 할 수 없다’ 는, 부처님가르침의 제1의 법칙 제행무상(諸行無常)입니다.

이것을 마주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떤 이야기가 가능하겠습니까? 새 생명이 나온다 해도 새로움 자체를 부정합니다. 스스로 익숙함의 반복으로 새로 태어나길 거부해버립니다. 그러나 자기의 참생명 자리를 목격한 사람은, 생명 자체가 그때마다 태어남을 알기에 새 생명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을 견성

성불이라 합니다.

이처럼 자기의 생명가치를 마주한 사람은 항상 새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지나간 것을 반복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반복되는 삶에서는 어떤 새로운 것도 벌어질 수 없는데 말입니다.

얼마 전 TV에서, 대학교수 한 사람이 고향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고향을 안 가려고 해요. 지금은 교수이지만 어린 시절에는 공부를 못했나 봅니다. 동네에서는 조금 모자란 아이로 찍혀서, 심지어 현재 교수인 것을 동네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처럼 대부분 어떤 사람이나 사건, 사물을 고정시켜놓고 항상 하길 바랍니다. 이 망상에서 못 깨어납니다.

오늘은 이런 망상을 깨주는 아주 좋은 모델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육면’이라는 이름의 낭자입니다. 저는 이 육면낭자만 생각하면 가슴이 저립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아간벼슬을 지내던 ‘귀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중간 귀족 정도 되는 신분인데, 이 사람이 친구들과 뜻을 모아 염불결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 것이 아니라 부처님가르침을 잇는 결사를 하자고 한 거죠. 만일(萬日)결사를 했습니다. 만일이면 삼십 년이죠? 오로

참생명 자리를 목격한 사람은
생명 자체가 그때마다 태어남을 알기에 절망을 통해
새 생명과 마주합니다. 이것을 전성성불이라 합니다



지 나무아미타불 염불을 하다가 죽자 이겁니다. 그런데 이 모임의 구성원은 모두 귀족입니다. 일반적으로 귀족들은 자기가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염불결사를 하면서 자잘한 일은 노비들에게 시켰습니다. 그때 노비로 데려갔던 계집종의 이름이 육면입니다. 이 남자는 귀진이란 귀족이 염불수행을 하는데 동참을 하게 됐습니다. 동참이란 것이 다른 게 아니라 필요한 염주나 법요집 같은 수행도구를 챙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진이 법당에 들어가서 염불을 하면, 육면은 염불이 끝나고 나올 때까지 밖에서 대기합니다. 신발을 닦아놓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기다리며 문밖에 있던 육면의 귀에 주인과 주인의 도반들이 안에서 나무아미타불, 염불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천한 신분이기에 법당에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법당 밖에서 이 육면냥자는 염불을 열심히 따라서 했습니다.

어느 날은 주인의 염불정진이 끝났는지도 모르고 육면은 염불삼매에 빠져 있었고, 결국 귀진이 알게 되었습니다. ‘건방진 것이, 노비주제에 염불을 같이 하다니!’ 하며 기분이 나빠진 귀진은 그때 못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육면을 법당에 못 오도록 박해를 시작한 겁니다. 하루에 곡식 두 섬을 주면서 다 쪼고 올라기도 했습니다. 법당에 못 오게 하려고 한 것인데, 그래도 육면은 염불을 잊지 않습니다.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고, 노비이기에 아무런 권한도 없지만, 오로지 극락왕생에 대한 믿음으로 곡식을 쪼습니다. 법당에 가서 염불해야겠다는 일념으로 곡식을 쪼습니다. 이에 감동한 사천왕들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대신 쪼어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래동화인 ‘콩쥐팍쥐’의 이야기가 여기서 비롯된 거죠.

아무튼 육면은 그때 곡식 두 섬을 순식간에 쪼고 법당에 갑니다. 귀진이 염불을 마치고 나와서 보고는 기가 막힌 거죠. 곡식을 쪼고 있어야 할 육면이 법당에 나와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야단을 치고 확인을 해보지만, 과연 다 쪼어놓았어요. 다른 일을 시켜서 더 고단하게 만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원문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초저녁에 다 쪼어놓고 귀사 염불했다’ 기가 막힌 거죠. 어떤 일을 시켜도 그때마다 일을 끝내고 법당에 와서 염불했다는 거죠. 이제는 귀진도 오지 말라는 소리를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명색이 만일결사를 하는 수행자 아닙니까, 그래서 묵인하고 있었습니다.

조건

드디어 이야기는 절정으로 치달습니다. 우리도 가끔 앉아서 정진하다 보면 졸릴 때가 있잖아요? 육면도 그랬습니다.

앉아서 졸리니까 서서 정진했습니다. 그래도 쏟아지는 잠을 도저히 이길 수 없어서 법당 마당에 말뚝을 두 개 박습니다. 거기에 노끈을 묶고, 송곳으로 손바닥을 뚫습니다. 그리고는 노끈에 손을 매요, 그러면 합장이 되죠? 그렇게 하고 염불을 해도 잠이 와요.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면 기록에 보면 손을 흔들었다고 합니다. 노끈이 손바닥을 뚫고 간 것도 아픈데 흔들어대면 더 아프겠죠? 계속 흔들면서 염불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비장하고 처절한 순교자의 모습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 사람은 말 그대로 나 자신에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귀진보다 수행자로서는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미련이 있습니다. 끝끝내 ‘나’ 라는 것을 연장하면 뭐가 있겠지 하는 기대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 봐야 남는 것은 ‘나’ 의 파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육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었어요. 합장한 손을 흔들어가면서 오로지 염불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에서 소리가 크게 들려왔습니다. “육면낭자는 법당에 들어와서 염불하라!” 그 소리를 법당 안에서 염불하고 있던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육면이 누구야?” 라고 웅성거리는데, 귀진은 알아채고, 깜짝 놀랐습니다. 귀진이 맨발로 뛰어나가서 노끈을 양손에 묶고 흔들면서 염불하고 있는 육면낭자를 보았습니다. 환하게 밝은 얼굴로 염불하는 육면 앞에 가서 귀진은 오체투지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부리는 노비에게 절을 올린 겁니다. “제가 우리 집에 성인이 계신 줄

우리는 멈출 수 없는 위대한 생명의 주인입니다

모르고 함부로 대했습니다” 하며, 옥면낭자를 법당 안의 가장 상석에 모시고 염불결사를 계속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옛날 설화로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연스님은 이렇게 찬탄했습니다. 일성성일불(一聲成一佛) 한 소리로 한 부처를 이룬다. 즉, 염불 한 번이 부처라는 거예요. 소리 한 번 낼 때 한 번의 부처가 탄생합니다. 소리에 담겨서 내 부처님생명의 삶을 그때마다 선언하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이 옥면낭자의 일화에서 분명히 배워야 합니다.

‘나’ 라고 하는 존재가 절망했을 때, 오로지 그때마다 새 생명의 주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 절망이 바로 ‘나무(南無)’! 입니다.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주인공은 과거를 반복하는 못난 자가 아닙니다. 그때마다 새 생명으로 태어나 그 눈길로 자식을 보고, 그 귀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니, 그때마다 새 생명의 주인이 되어 성장의 길을 가게 됩니다.

무한성장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내 생명은 본래 무한성장인 향상(向上)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멈출 수 없는 위대한 생명의 주인공입니다. 이 생명의 위대함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고 또 어느 시대, 어떤 장소에도 구애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때마다 나라는 생명이 깨어나죠? 이럴 때를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깨어난 생명 주체의 자리에서 보면, 그때마다 깨지기 때문에 깨침이라 하는 겁니다.

반드시

이렇게 껍질을 벗으면서 그때마다 성장하는 모습을 세 국면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각(自覺), 각타(覺他), 각행원만(覺行圓滿)이 그것입니다.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깨닫는 사람은 반드시 만나는 사람을 깨닫게 합니다.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아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새 생명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아들도 새로운 아들입니다. 나만 깨닫는 게 아니에요. 자각한 사람은 각타, 반드시 만나는 다른 상대자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각행원만이란, 그 깨달음은 반드시 행을 수반합니다. 깨달음으로 살게 되어 있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은 결코 모순되는 일이 없습니다. 모순은 어디에서 발생한다고 했죠? 과거에 내린 결과에 고정되어 기대를 걸 때 모순이 발생합니다. 생명은 그때마다 새 생명이기에 자각, 각타, 각행원만입니다.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결국 나라는 자는 깨지고, 절망할 때 새 생명이 태어나는 원리가 작동됩니다. 저 사람에게 깨달으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 깨달았을 때 만나는 사람은 반드시 새 생명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삶이 볼 만하고 원만해집니다. 삶에서 부딪힐 게 없어요. 오로지 매 순간 만족만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행복은 이렇게 안에서 얻는 것도 아니고, 밖에서 얻는 것도 아닙니다.

흔히 명상을 통해서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경력을 쌓아서 얻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행복을 안에서 찾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안에서 얻으려는 것은 지나간 것을 반복하겠다는 뜻입니다. 또 반대로 밖에서 구하는 사람도 있습니



나로부터 깨어날 때,
나와 모든 만나는 사람이 깨어나기 시작하고,
언제나 행복으로 가득 찹니다

다. 밖에 뭐가 있겠지, 하며 밖에서 구하는 것은 반드시 나와 상대화됩니다. 안에서 얻을 것도 없지만, 밖에서 구할 것도 없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저 누릴 뿐입니다. 삶은 이렇게 볼 만한 겁니다. 지금 내 나이가 어떠하든, 건강 상태가 어떠하든, 재정 상태가 어떠하든 그러한 상대적인 것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내 생명은 이렇게 위대한 생명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절대적으로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원래부터 행복한 사람인데 왜 행복을 구해야 합니까? 다만 누려 가면 되는데 못 누리게 하는 범인을 알고 보니, 스스로 윤회하기를 능사로 하는 착각 속의 ‘나’ 였다는 거죠.

나로부터 깨어날 때, 나와 모든 만나는 사람이 깨어나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은 언제나 행복으로 가득 찹니다.

절망이란 말을 이제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지요? 절망이란 말은 부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나의 생명이 그것으로 끝장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우리의 생명은 무한한 성취의 주인공으로 지금도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행복의 주인공으로서 맘껏 누립시다! 그리고 그 행복의 가치를 만나는 사람에게 전합시다. 나 혼자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깨달음은 반드시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그랬을 때 내 깨달음도 완성됩니다.

내 참생명의 세계는 적어도 사회적 현상에 의해서 조정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두 환상을 깬 참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거듭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절대행복의 주인공입니다. 나무아미타불.^(註)

정리 보산 / 녹취 세원



대비의 물로
중생을 이롭게 하면,
즉시에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이
지혜의 열매를
성취케 한다.

—혜심



* 법회에서 법문 듣고, 들은 법문을 되새기며 살아가는 법우의 가슴에 남는, 찰막한 경문 또는 법문을 소개합니다.

염불을 권합니다

수서방십권(修西方十勸)

그대에게 첫 번째 권합니다.

염불을 오래하되, 모름지기 진실해야 합니다.

부처님가르침에 귀의하여 의심하지 말고,

원숭이처럼 들뜬 마음을 다스려서 제멋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대에게 두 번째 권합니다.

염불만 생각하고 딴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깨끗이 하여 결단코 서방왕생을 원(願)하면,

임종할 때 스스로 여래께서 오심을 뵈올 것입니다.

그대에게 세 번째 권합니다.

염불은 모름지기 애착과 탐욕부터 끊어야 합니다.

임종할 때 마음이 깨끗해야 여래를 뵈오니,

마치 깨끗한 달빛이 푸른 연못에 비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대에게 네 번째 권합니다.

염불할 때는 마음이 흔들리거나 잊어버리지 않게 합니다.

그러면 임종할 때에 극락의 보배연꽃이 맞아 주며,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함께 오실 것입니다.

그대에게 다섯 번째 권합니다.

염불할 때는 고통이 심하다고 해서

그만두지 말아야 합니다.

오랫동안 생사에 윤회하던 것을 생각한다면,

다시 누군가에게 벗어날 길을 구할 것인가?

그대에게 여섯 번째 권합니다.

염불할 때는 항상 쉬지 말고 꾸준히 합니다.

수순(隨順)하며 평상시에 염불하지 않으면,

어느 날에 생사의 지옥을 벗어날 수 있겠는가?

그대에게 일곱 번째 권합니다.

염불에는 몸과 말과 뜻의 삼업(三業)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오로지 공경예배하고 서방을 원하면,

그곳에 가서 아미타불의 뛰어난 빛(無上田)을 친견할 것입니다.

그대에게 여덟 번째 권합니다.

염불을 닦으라고 가르친 것은 석가모니불의 가르침입니다.

마땅히 본사(本師)의 말씀을 따르고 받들면,

목숨이 끝나고 아미타불국토에 왕생할 것입니다.

그대에게 아홉 번째 권합니다.

염불에는 진실한 마음이 으뜸입니다.

그러면 임종할 때에 화신불(化身佛)이 함께 와서 맞이하며,

칠보의 연꽃이 원에 따라서 유도할 것입니다.

그대에게 열 번째 권합니다.

염불은 모름지기 마음과 입이 언제나 절박해야 합니다.

업(業)의 바다에서 괴로운 윤회의 수레바퀴가 깊음을 헤아려보니,

생사에 휘둘릴 때는 후회해도 소용없을 것입니다.

— 『염불경』

〈비유의 재발견(17)〉

돼지는 왜 돼지가 되었을까 (2)

정신(淨信)법사

지난 호(307호)에 기해년 돼지해를 맞아 돼지의 상징성보다는 축생적 속성을 살펴보면서 자신을 돌아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돼지는 왜 돼지가 되었을까 라는 엉뚱한 질문을 던져 보았지요. 당연히 축생의 업(業)으로 인해 돼지의 과보를 받았다고 결론을 내리고, 그 업에는 직접적인 원인과 간접적인 원인이 섞여서 돼지의 업보가 되었다는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끝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들의 사고패턴을 리셋해 주시는 ‘금강경의 즉비(卽非)의 법문’을 떠올려 보면서 그 문제를 풀어봅시다. 즉비의 논리로 돼지의 실상을 표현해보면, ‘돼지는 돼지가 아니기 때문에 돼지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돼지는 돼지다’ 는 직접원인이고 ‘돼지는 돼지가 아니다’ 는 간접 원인입니다.

모든 만물은 인연소생(因緣所生)이라고 말합니다. 인연이 서로 관계 맺고 화합하여 생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직접 원인을 인(因)이라 하고 간접 원인을 연(緣)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 밭에 큼지막하게 자란 호박의 직접원인은 호박씨이고 호박씨를 심고 기르는 과정 전반에 관여하는 것들, 즉 토양, 물, 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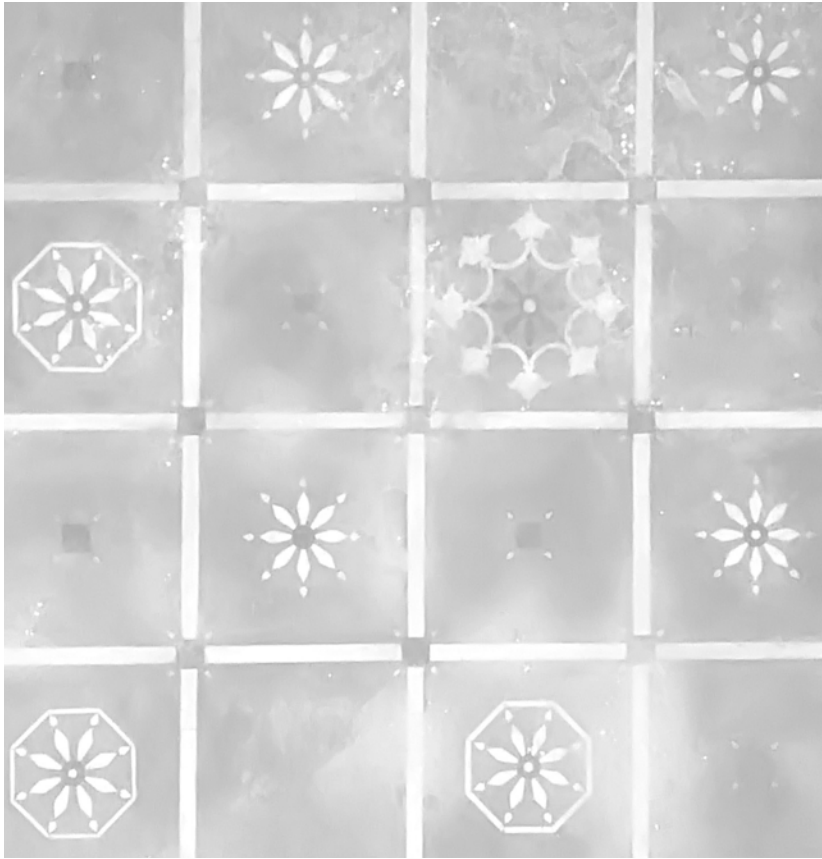
기, 햇빛, 기르는 이의 손길 등등은 간접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보면 간접원인은 엄청나게 광범위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접원인은 간접원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간접원인을 아무리 더한다고 해도 호박씨에서 수박이 나오게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다양한 군상들이 생겨난 기원과 원리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과학에서 밝혀낸 생명의 기원은 물과 이산화탄소 그리고 단백질의 화합으로부터 기인한다고 합니다. 거기서 단세포 생물이 홀연히 생겨나서는 환경에 적응하며 생존을 위해 진화해 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수많은 생류가 생겨나는 것에는 짓는 바 행위 즉 업의 원리가 작동되어 온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씬 없이 반복된 행위는 그 생명을 구분 짓는 특징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업은 소위 현대과학에서 말하는 DNA에 그 생명의 속성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수많은 변화에 적응하며 스스로 진화해 온 속성은 역설적으로 그 속성을 유지하고 상속하려는 경향을 띠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어떤 속성이 원래부터 있어 온 것이라는 착각을 갖게 되는데, 이 착각으로 인해서 결정론적 생명관이 생겨나게 됩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기 마련이고 그 결과가 또 다른 원인이 되어 새로운 결과를 만듭니다. 이런 순환적 패턴이 계속 되풀이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그 원인을 확대하면 생명류의 속성별로 큰 범주가 형성되고 그 범주를 돌고 도는 것을 윤회(輪廻)라고 합니다.

육도윤회(六道輪廻)의 카테고리는 생류들을 여섯 가지로 분류한 것이 아닙니다. 지옥, 아귀, 축생, 수라, 인간, 천상이라는 여섯 가지가 소위 그것인데,



이는 모든 생류의 속성을 범주화 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지옥은 고통의 세계이고, 아귀는 굶주림의 세계, 축생은 본능의 세계 그리고 수라는 다툼의 세계 그리고 인간은 자의식의 세계이고, 천상은 초월의 세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생류가 자기가 지은 업의 영향을 받아서 그 속성으로 표현되어 지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떠밀려 들어가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스스

로 선택해서 들어간다고 해야 합니다. 이것이 업력(業力)입니다.

돼지는 왜 돼지가 되었을까요? 돼지로서 살아가는 업을 지었을 것이기에 현재 돼지로 태어났을 것입니다. 육도윤회의 카테고리 속에서는 축생의 영역에 속하는 것입니다. 축생은 본능을 그 속성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돼지로 태어나는 순간 본능적으로 다시 또 돼지의 업을 짓게 될 것이기에 영원토록 돼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돼지는 어떻게 돼지의 업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돼지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즉 돼지가 실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돼지의 속성을 볼 뿐입니다. 그 속성에 이름을 붙이고 형상화해서 돼지라고 할 뿐입니다. 그래서 돼지는 돼지가 아닙니다.

돼지라는 관념도 내 기준일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전해진 정보와 내가 경험하고 내가 이름 붙여서 그렇게 부를 뿐입니다. 어떤 속성을 말이지요. 가령 새끼돼지를 보고 어떤 사람은 귀엽고 사랑스럽다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맛있겠다고 하면서 군침을 흘린다면, 그 돼지는 저 두 사람에게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하지만 돼지의 속성은 앞에서 식탐이라고 요약했듯이 식탐을 내면 사람도 돼지 같다고 불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금강경의 즉비의 논리를 대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돼지는 돼지가 아니기에 돼지이다’ 돼지를 고정화된 실체로 보지 않으면 속성만 보인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볼 때 우리는 돼지라는 고정된 ‘업’에서 벗어나게 되기에 돼지도 돼지의 업을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변색한 내용입니다만, 이미 길이 나 있는 사고패턴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는 계기를 만들어 보자고 시도한 생각들입니다.

‘미란다왕문정’에서 윤희의 주체가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 하는 메난드로스 왕에게 나가세나 존자의 자상한 설명이 이어지지만, 쉽게 이해하지 못하고 재차 비유를 들어 설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중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윤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면 좋을 듯합니다.

대왕이여, 어떤 사람이 등불을 가지고 자기 집 꼭대기 방으로 들어가 식사를 하다가 그만 그 등불이 지붕에 옮겨붙어서 그 집을 태우고 이어서 마을을 태웠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사람을 붙잡아 ‘당신은 어찌해서 마을을 태웠소’ 하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왜요? 나는 마을을 태우지 않았습니다. 내가 식사를 하기 위해 밝힌 불과 마을을 태운 불은 다릅니다’ 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입씨름하다가 대왕에게 와서 그대로 말한다면 대왕은 어느 쪽 말이 옳다고 하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의 말이 옳다고 하겠습니까”

“어찌하여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마을을 태운 불은 그 사람이 식사하기 위해 사용한 불로부터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나무아미타불.

불기 2563년(201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법회



산하대지가 싱싱하고 향기로운
생명력의 꽃을 피우는 계절,
내 삶의 터전에
부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립니다.
원하시는 일들은 남김없이 성취되고,
지혜는 증진되며,
건강과 행운이 가득합니다.
오늘은 부처님오신날.
넘치는 기쁨으로 모두 함께 축하합니다.

봉축법회

- 일시 : 2019년 5월 12일(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각 지역 전법원
- * 식전 행사로 탄신불 관욕식이 있습니다.
- * 전법등 신청 접수와 각 종 공양물 발원은 각 지역 전법원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당일 전법등 신청은 혼잡할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세요~

불기 2563년(2019년) 부처님오신날

온 세상을 밝히는 전법등 공양을 올립니다

생명의 빛은 나누면 나눌수록 밝아집니다.
이것이 전법(傳法)의 원리입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전법의 원(願)을 담아
온 세상을 밝히는 전법등(傳法燈)을 공양 올립니다.

부처님가르침 만나서
나날이 밝게 살아감에 감사드리고,
나와 함께 온 세상이 밝아지도록
친지와 이웃에게도 전법등 공양을
적극 권선향시다.

● 신청 및 문의는 각 지역 전법원으로 ^^

중앙전법원 031)966-3581~2

대전전법원 042)485-8111

정진원 · 정토사 061)381-0108

〈전법등 발원 신청서〉는 팩스나 e메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법등 발원을 권하고 싶은 지인의 성함과 주소를 법회로 알려주시면 곧바로
그분께 신청서를 보내드립니다.

적극 권선향하시어 부처님과 인연 맺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019 문사수 국내구도여행

보살의 공양, 꽃 피는 생명!

관동지방은 예로부터 독자적인 불교문화와
선지식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땅입니다.
강릉단오제의 산신으로 모시는
범일국사의 기상이 살아있는 구산선문의 최고봉 굴산사지,
의상대사의 관세음보살 친견사찰 낙산사,
살아있는 보살을 친견할 수 있는 보물 신복사지,
심신의 피로를 말끔히 치유해주는
설악산 주전골계곡과 오색석사, 오색탄산온천
그리고 법회의 새로운 전법도량 연해실.
법문으로 살려지고, 지금도 공양하고 계신
보살을 친견하며 나를 투영할 때
새롭게 태어나는 자신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시간이 마련된 국내구도여행에
법우님을 초대합니다.



- 일 시 : 5월 25일(토) ~ 26일(일) 1박2일
- 코 스 : 강원도 양양 낙산사, 강릉 굴산사지/신복사지, 설악산 주전골/오색석사, 속초 연해실/바다향기로
- 숙 소 : 설악산 오색그린야드 호텔
(국내최고 오색탄산온천 무제한 이용)
- 동참비 : 7만원(초등학생 4만원), 교통비 별도
- 문 의 : 031)966-3581

문사수 구도여행단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법문을!

‘불교란?’ 오디오북 출시 [국문, 영문]

전법용 소책자 ‘불교란?’ 이
종이책, 전자책에 이어 오디오북으로도 발행되었습니다.
법회에서는 ‘듣는 책’ 시대에 발맞추어
다양한 법문컨텐츠를 오디오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 ‘불교란?’ 오디오북 다운 방법 :

- 팟캐스트 : 팟빵 앱 설치후 ‘문사수’ 검색 ...> 팟캐스트 ‘문사수 오디오북’ ...> ‘불교란?’ 다운로드 청취
- 오디언 : 오디언 앱 설치 후 ‘불교란?’ 검색
- 교보문고, 네이버 오디오클럽에 서비스 예정

* 출시 예정 오디오북 : ‘부처님의 생애’

■ 팟캐스트(인터넷방송) 청취 안내

팟빵에서 ‘문사수’를 검색하면 아래 두 개의 팟캐스트가 나옵니다.
‘구독하기’를 누르면 새로운 법문이 업로드될 때마다 스마트폰에 알림이 뜹니다.

- ▷ 여여법사의 불교와 삶 : 문사수 경전학당에서 진행된 강좌
- ▷ 문사수 오디오북 : 월간신앙지 ‘진리의 빛, 법우’, ‘불교란?’, ‘부처님의 생애’ 등 단행본

* ‘공유하기’로 법문을 쉽게 전해요^^

여여법사 법문 _ [3]

만남법문 法門 이 발간되었습니다

고정된 모습을 여의고
진정한 나를 마주함이
곧 너와 세상을
만남임을 일러주는 이 법문집은,

“나는 너를 만나고 있는가?”
하는 물음으로 시작합니다.
익숙했던 생각이나 행동을
포기하지 않고는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만남법문』을 통해,
지금 누구와 만나는지
돌아보는 기회입니다.



지 은 이 **여여(如如) 문사수법회 대표법사 / 128쪽**
발 행 처 **문사수(초판 2019년 2월)**
정 가 **3,000원**
구입문의 **031)966-3581**
입금계좌 **국민은행 161601-04-001600 (사)문사수불교문화원**

※ 국내 유통 대형서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보시_{布施}란,

나와 너가

한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아미타경(37)〉

스스로 윤회한다

법문 | 여여법사

조절

지난 호에서, ‘그대는 저 새들이 죄업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저 불국토에는 삼악도(三惡道)가 없기 때문이다’, ‘불국토에는 악도라는 이름도 없는데, 어찌하여 그런 것이 있으랴...’ 라는 경문을 살펴봤 습니다.

새들이 죄업으로 생긴 것이라는 말은 내 눈에만 새로 보이지 본질은 부처님 의 화현이라고 했습니다. 내 눈앞에 나타난 모습을 가지고서 무어라고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눈앞에 나타난 그것은 바로 그 순간 또 변하는 것임에 도 불구하고, 자꾸만 고정되어 보인다면, 그것이 문제입니다. 고정되어 보 이는 한, 반드시 삼악도가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이 삼악도는 지옥, 아귀, 축생을 나타내며, 생명의 나쁜 길이고, 해로운 길 을 일컫습니다.

그중 지옥은 말 그대로 캄캄하고 암담함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모습을 잘 표현한 영화가 코폴라 감독의 ‘지옥의 묵시록’ 이라는 전쟁영화입니다. 상 당히 감동적인데 이 영화를 보면서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인간을 황폐하게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의 본질은 부처님의 화현입니다

하는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됩니다.

베트남 전쟁을 배경으로 한 이 영화는 인간이 얼마만큼 잔인성을 합리화하는가? 지옥 속에서 살면서 그 안에서 모든 판정을 이미 끝내놓고 있으니까 암담합니다. 눈을 감고 자기만의 세상을 살기에, 표현된 모습이 무섭고 성을 잘 냅니다. 성 잘 내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의 답을 갖기에 조금만 자극하면 벌컥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암담함에 대해서 어찌할 수 없기에, 성내는 거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 아귀는 성내면서 자기 생명을 스스로 갇아 먹습니다. 아귀의 딜레마는, 배가 태산보다 크고 목구멍은 바늘구멍보다도 가늘다고 하는 모습에 잘 나타납니다. 이런 아귀가 배가 고파도 목구멍이 바늘구멍보다 가느다라니까 음식을 제대로 삼키질 못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배가 고플까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현대인과 너무나 비슷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대인을 보고 아귀라고 하면 기분 나빠할 텐데,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가져도 가져도 더 가지고 싶고, 얼마만큼 가져야 할지 모르고, 남에게 나눠주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내가 먹어야 하고 써야 하는데, 양껏 먹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는 상황인 거죠.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일상의 생활필수품 이외에 더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장물아비라는 말에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옷과 구두를 골라 입고 신는다고 한다면, 하나 이상의 무엇을 더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닐까요?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린 다 장물아비가 맞다고 봅니다. 내 것



도 아닌데 쓰지도 않으면서 가지고 있다는 거죠. 물론 극단적 표현이지만, 아귀적인 삶은 쟁겨 놓긴 엄청나게 하는데, 내가 채워야 하기에 남에게 나눠 줄 엄두를 못 내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아귀의 삶을 산다는 것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자기 욕심을 조절을 못 하고 얼마만큼 가져야 하고 누려야 할지도 모르고, 무한히 쌓아놓기 바쁩니다. 그러니 자기 생명은 점점 더 피폐해지죠. 회색빛 얼굴로 초췌하고 눈은 쾅하니 쑥 들어갔습니다. 그게 경전에서 보여주는 아귀의 그림입니다. 아주 음침하고 뿔뿔하지 못한 표정을 한 모습으로 말입니다.

다음에 축생을 보자면, 본능만 앞세우는 삶입니다. 식욕, 성욕 수면욕 등으

로 드러나는 게 본능입니다. 이것은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가치중립적인 거예요.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냥 두면 되는 걸 오직 그것만으로 삶의 가치를 따집니다. 그게 축생의 삶입니다.

예부터 개돼지만도 못한 놈이라느니 인두겁을 썼다느니 참 표현이 적나라한데, 돈 벌기 위해 끔찍한 일을 벌이고 사람들의 불행을 이용하는 그것이 축생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개돼지가 축생이 아니라 본능만으로 생명을 설정한다는 뜻입니다.

정견

저 불국토에는 삼악도가 없다는 것은, 나를 앞세우는 한 본질적으로 삼악도의 삶을 피할 수 없는 딜레마를 가리킵니다.

극락왕생의 극락세계를 말하면서 나를 앞세우는 한 악도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끔찍한 일입니다만,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나는 끝내 악도에 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난 어떻게 해야지?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되네? 나라는 것은 죄업으로 가득 차서 삼악도에 갈 수밖에 없잖아? 매일 나를 앞세우는 테두리 안에서 윤회하는 삶밖에 없네? 그러니 무슨 희망이 있겠어? 하는 반성을 내포합니다.

이처럼 결과로 나타난 나라는 자가 원인 행세를 하면, 삼악도의 삶을 살게

나를 앞세우는 한
본질적으로 삼악도의 삶을 피할 수 없습니다

되고 윤회를 하니, 이것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극락왕생은 나라는 자의 테두리가 없어진 거라고 했습니다. 내가 없어진 상(相), 내가 앞세워지지 않은 상태이기에, 죄업이라는 이름도 없는데 하물며 삼악도라는 실상이 있겠는가? 그러니 이런 세계를 일러 극락세계라 하고 불국토라고 이름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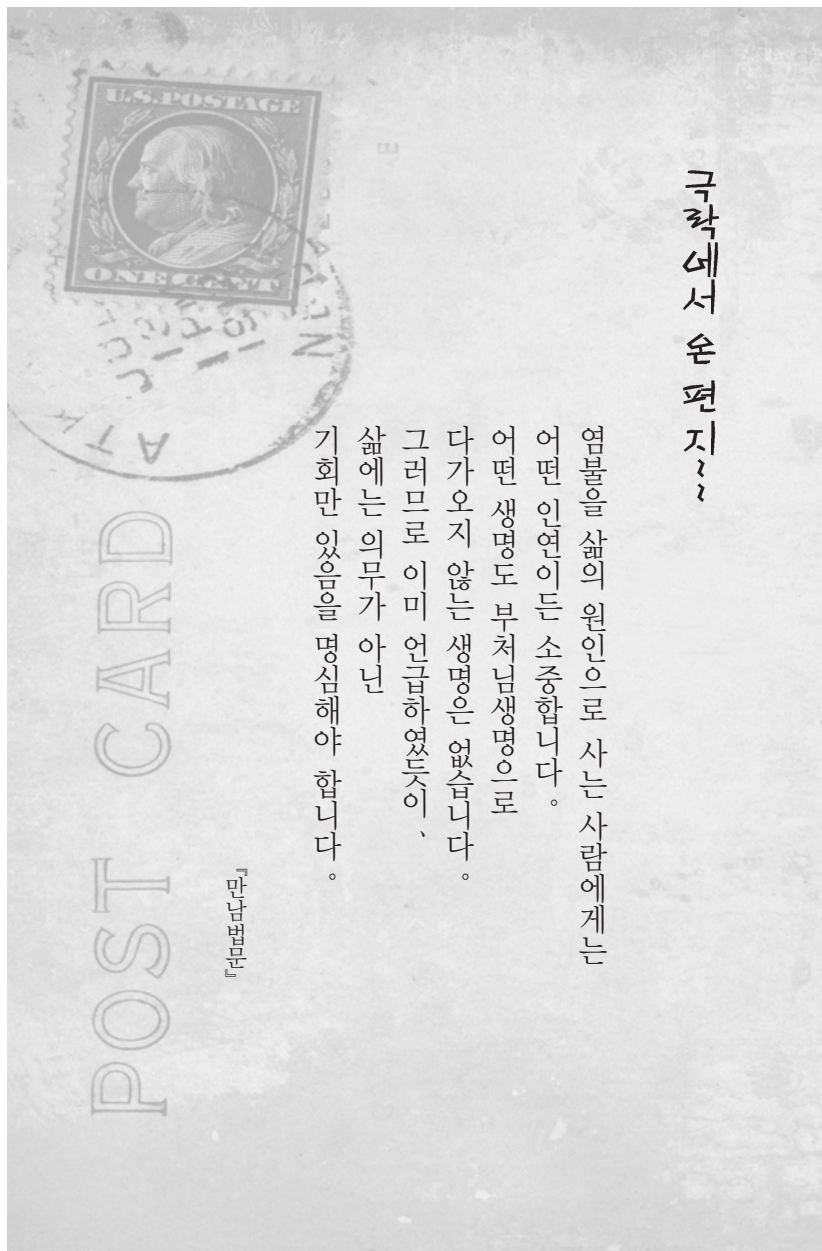
나를 바르게 보지 않으면서 자기가 가진 답을 확인하려 할 때 그것이 사견(邪見)입니다. 샷되고 바르고의 기준은 내가 개입되면 샷된 것이고, 내가 따라오면 바른 거죠.

멀쩡한 사람이 황당하게 샷된 짓을 하는 것은 나를 앞세우기에 그렇습니다. 나를 위한 상대적 판단을 넘어 생명을 악도로 몰고 가는데, 자기 생명을 위축하고 갇아먹고 그래서 윤회하게 하는 범인은 바로 나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윤회한다고 합니다. 누가 억지로 윤회하고 지옥으로 가라고 했나요?

악도가 아닌 것이 극락세계라고 하다면, 그것은 내가 개입된 생각이기에 또 하나의 사바세계가 되고, 나를 앞세우니 그곳 또한 지옥입니다.

나라는 판단과 측정과 평가를 내려놓게 되면, 나는 그 결과물로서 살아가는 것뿐입니다.(계속)

정리 수산 / 녹취 성심



극락에서 손편지~

염불을 삶의 원인으로 사는 사람에게
어떤 인연이든 소중한 것입니다.
어떤 생명도 부처님생명으로
다가오지 않는 생명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언급하였듯이,
삶에는 의무가 아닌
기회만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만법만만만』

합장은 연꽃이요
이 몸은 공양구라
염불로 향을 피워
찬탄의 구름 되니
감응하신 부처님
오늘 나를 건지네

문사수법회 www.munsasu.org

전화 031)966-3581~2

깨달음의 길 · 심우도(尋牛圖)

4 무엇을 얻었던 말인가 득우(得牛)



오랫동안 야외에 숨어 있었는데, 오늘에야 비로소 만났네.
뛰어난 경치 때문에 쫓아가기 어려운데,
싱그러운 수풀 속을 끊임없이 그리워하네.
고집 센 마음이 여전히 날뛰니, 야성이 아직도 남아 있구나.
온순하게 하고 싶으면, 반드시 채찍질을 더해야 한다.

온 정신을 다하여 이놈을 잡았으나,
힘세고 마음 강해 다스리기 어려워라.
어느 때는 간신히 고원 위에 올랐다가도,
어느 땐 구름 깊은 곳에 들어가 머무누나.

* 이 글은 문사수법회에서 여여법사님이 법문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소(牛)로 비유되는 참생명자리를 찾아가는 구도의 여정에 있어서, 이 ‘득우(得牛)’의 단계는 매우 중요한 고비입니다. 그토록 바라마지 않던 소를 붙잡긴 했으나, 소에게는 아직 야성이 남아있기에 소를 온순하게 하기 위해서는 긴장을 늦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를 찾은 정황에 대해 말하기를, ‘오랫동안 야외에 숨어있는 소를 오늘에야 비로소 만났다’고 합니다.

야외는 보통 내가 사는 집이나 마을을 벗어난 들판을 가리키지만, 여기서 야외는 ‘나’가 설정해 놓은 익숙한 ‘내 식’의 범주에서 벗어난 곳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깨달음이란, ‘내 식’의 무엇을 추구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나타냅니다. ‘내 식’의 무엇을 전부 포기하는 그 자리에 바로 우리의 본래 마음자리가 드러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소를 찾았다고 하지 않습니다. ‘비로소 만났다’고 합니다. 찾는다는 것은 찾는 ‘나’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며, 찾는 ‘나’가 있어서는 결코 진리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깨달음을 얻는다면 이는 유위법(有爲法)에 지나지 않기에 깨달음은 결코 목적적이 될 수 없습니다.

‘나’가 ‘내 식’의 무엇을 추구하는 것을 다 내려놓을 때, 본래 있던 진리가 드러나서 진리를 만나게 됩니다. 지난달의 지면에서 견우(見牛)의 ‘견(見)자(字)’는 ‘볼 견’이기도 하지만, ‘드러날 현’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그 의미로 봤을 때 ‘견우’로 읽는 것보다 ‘현우’로 읽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했습니다.

소를 쫓아가는 도중에 만나는 뛰어난 경치는 매사에 내 뜻대로 잘 풀리는

환경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환경에서는 마음자리 찾는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뛰어난 경치 때문에 소를 쫓아가기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 본래 자신의 마음자리와 마주하려면 내 뜻대로 잘 풀리는 환경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내 뜻에 거슬리는 역경(逆境) 속에서 스스로를 닦아갈 기회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경에 부딪히지 않으면 한없이 게을러지며, 익숙함이 주는 안일함에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게 될 따름입니다.

역경은 우리가 원하지 않았다고는 해도 피해야 할 것은 아닙니다. 진정 나를 닦아갈 고마운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러한 기회는 ‘나’ 에게 있어서는 모두 위기이기에 역경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회라는 것은 항상 위험하지 않은 적이 없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정된 ‘나’ 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해야 한다는 것이 분명 위험천만한 모험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 의安危를 장담할 수 없는 불확실성에 뛰어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불확실성에 우리 삶의 진실이 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고정할 수 없고, 그 무엇이라고 규정지을 수도 없다는 것은 그 무엇도 되지 못할 것이 없는 무한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이 무한가능성이 우리 삶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 무한가능성을 누리는 주인 자리가 바로 우리의 참생명자리이며, 바로 심우도에서 찾고자 하는 소입니다.

그러므로 ‘나’ 라고 굳어진 것이 있다면 이는 포기해야 합니다.

불확실성이 두려워서 변화의 기회를 외면한다면, 스스로 둘러친 겹질 속에서 무한생명의 가능성은 그냥 가능성으로만 남아있게 될 따름입니다. 아니,

가능성이 있다는 것조차 감히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굳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스스로 깨고 나오지 못합니다. 익숙함이 주는 편안함에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싱그러운 수풀 속을 끊임없이 그리워한다’ 라는 것은 바로 ‘나’라고 하는 익숙한 자리를 쉽사리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뛰어난 경치 때문에 쫓아가기도 어려운데, 게다가 싱그러운 수풀 속을 끊임없이 그리워합니다. 이는 내 뜻대로 잘 풀리는 편안함 속에서 게을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식’의 익숙한 범주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것의 정체가 바로 습(習)입니다.

습이란 이처럼 ‘나’에게 익숙하고 굳어진 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고집하는 것이며, 여기에서 ‘고집 센 마음’과 ‘야성’이라고 한 것이 바로 이 습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 한, 익숙한 무엇에 안주하려고 하는 습은 끊임없이 작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가르침을 공부하면 할수록 자신의 습을 잘 알아차리게 되는데, 이러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번뇌가 더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행하면 할수록 번뇌가 더 치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가(佛家)에 “도(道)가 높아질수록, 마(魔)가 성(盛)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흔히 번뇌를 없애려고 수행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오히려 수행하면 할수록 번뇌가 더 많아진다고 하니 혼란스러워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가에서는 “번뇌가 곧 깨달음이다”라고 합니다. 번뇌의 에너지를 전환하면 곧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를 얻었다고 해서 방심하지 않고 반드시 채찍질을 더 해야 합니다. 습이라는 것은 끝없이 작동하려고 하기에, 그럴 때마다 이에 타협하지 않고 가일층 정진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번뇌가 더 많아지고 더 괴로워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물러서지 않고, 자신에게 있는 습기가 더 드러날 수 있도록 더욱더 자신과 똑바로 마주해야 합니다. 그래서 번뇌가 번뇌임을 잘 알고 보는 사람은 번뇌에 끌리지 않습니다. 번뇌가 치성한다는 것은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 가는 과정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거쳐야 할 것은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것을 알기에, 들끓는 번뇌도 기꺼이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송에서는 그토록 바라던 소를 얻었으나 이 소가 ‘어느 때는 고원에 올랐다가도, 어느 때는 구름 깊은 곳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에 비유함으로써, 날뛰는 소를 다스릴 줄 몰라 당혹스러워하는 심정을 좀 더 솔직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로 상징되는 자신의 마음자리를 좀 엿보게 되어, 어느 때는 자신이 높은 경지에 오른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어느 때는 여전히 남아있는 습으로 인하여 구름 속에 있는 것처럼 답답한 심정을 나타냅니다.

이 ‘득우(得牛)’의 장면은, 이 단계가 아직 진정한 깨달음을 얻은 단계는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를 얻었다는 것은 단지 자신의 참생명자리를 조금 엿보게 된 정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참된 생명가치를 실현하며 살아갈 가능성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가능성입니다. 우리가 운전면허를 취득했다는 것은 운전할 자격을 인정받았다는 것이지, 운전면허증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고 안전운전을 한다는 보장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채찍을 가해야 합니다. 소를 얻기는 했지만, 습기(習氣)라는 야성이 남아있는 소를 아직은 제대로 부릴 수 없기에 계속 채찍질을 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리 범정법사

기획특집

문사수 청문기 _ [2]

聞思修 聽聞記



새봄맞이 기획특집으로 준비한 ‘문사수 청문기’ 는, 오랜 세월 공부하며 들었던 정
감어린 옛날이야기를 모아서 법공양 올리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 돌아보니, 들었
던 이야기는 다 부처님가르침인 법문이었고 선지식의 행장이었다고 합니다. 지난
호의 발문에 이어 이번 호부터는 원효대사에 얹힌 재미있는 설화가 법문으로 또는
염불로 펼쳐집니다. 나무아미타불~

2.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길상화(吉祥華)*

어려서부터 절집에서 들었던 그 많은 설화는 그야말로 경전이었고 참생명
을 만나는 인연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설화는 나의 불도(佛道)의 초석이 되었
습니다. 비록 설화의 내용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모르지만, 그 누구도 단정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똑같이 보고 듣고 경험하고도 이야기가
한 사람 건너갈 때마다, 받아들이는 사람의 근기 따라, 멀고 가까운 인연 따
라, 나름대로 다시 꾸며지고 보태지기 마련입니다. 듣고 있는 사람에 따라
상대적으로 해석해 듣고 있으니깐요.

또한 어느 시대건 종교는 권력과 밀착되어 더러는 도구가 됩니다. 그 시대
권력과의 접합으로 탈바꿈되어 그들이 원하는 쪽으로 몰고 가는 것을 우리

* 민영희: 시인, 대한민국 불교문화상 문학부문 대상수상, 현재 서울동부구치소 문학강사,
2017년 법무부 표창장 받음.

는 역사를 통해 보아 왔습니다. 하여 이 글은 그나마 덜 꾸며지고 덜 보태어진, 설화가 생겨난 시간에서 가장 가까운 연대의 설화를 참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문사수(聞思修)’ 청문(聽聞)이 있었기에 불교설화를 바르고 당당히 전합니다. 또한 청문으로 불교의 설화는 옛날이야기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설화는 불교도의 길이요, 전법이요, 수도(修道)입니다. 하여 설화로 법문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설화, 옛날이야기 속엔 분명 나뭇의 교훈과 사람이 나아갈 길, 부처님의 절대법문이 바른 흐름으로 공존합니다. 일단 불교설화는 불교를, 선지식의 교훈을 배우는데 결코 놓칠 수 없는 불교역사서이기도 합니다. 이는 사실이나 거짓이냐를 떠나 그 속에 담긴 흐름, 면면히 설명해주는 석가모니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읽고 전해준 수행자들이 있었기에 오늘날까지 존재합니다.

특히 불교의 정수라 할 수 있는 ‘인연법(因緣法)’을 정확히 짚어 실천하면서 나의 참생명이 부처님생명으로 회향돼야 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불교설화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여 누구나 쉽게 부처님께 귀의하게 하며 회향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러한 설화를 지금 법우지를 통하여 만나는 법우들과 내일을 향해 달리는 청소년 법우들에게, 올바르게 전하고 이야기해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세간에 떠도는 이야기는 배제하려고 힘썼습니다. 또한 가장 진실한 이야기를 발췌하려고 했으며, 연대와 지역의 표기에서도 정확성을 기하려고 했습니다. 이곳이 어딴니까? ‘문사수법회(聞思修法會)’ 법우지이니

다! 대승불교의 자취이고 불교의 정수인 ‘인연법’을 지금부터 정확하게 드러낸 설화를 쟁겨볼까 합니다. 그리하여 지금은 법문 중—

3. 무애가를 부르다 _ 원효대사

한때 저는 회주님이 계셨던 한 사찰에서 한 법우와 함께 사시(巳時) 기도를 마쳤습니다. 대중공양을 하고 회주님이 거하시는 방으로 돌아와 고즈넉한 대법당을 굽어보며 앉아있었습니다. 그때 회주님이 허허 웃으시더니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멍하니 앉았어도 귀는 열려있으니 들을 수밖에. 점점 이야기 속으로 빨려듭니다. 기도 중 다른 생각을 일체 하지 않게 하려고 하시느라 겁니다. 안 들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정법(正法)으로 들어오면 모두 법문이 된다고 했습니다. 재미있습니다. 회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법문이 되어 대중에게 돌아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기억으로 들어가 열중하여 진솔하게 적어 보려고 합니다.

이곳은 지금의 경산군 불지촌입니다. 원효는 당시 신라 잉피공(仍皮公)의 손자이며 내마(奈麻) 담날(談捺)의 아들입니다. 잉피공의 성은 설(薛)씨. 원효(元曉)의 아명은 서당(誓幢) 또는 신당(新幢)이고 원효는 법명입니다.

원효대사의 집은 사라수 골짜기 서남쪽. 대사의 태몽은 어머니의 꿈에 별뿔별이 품속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고 태기가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0개월 후 마침 사라수 골짜기의 밤나무 아래를 지나다가 갑자기 해산하게 되어, 집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남편의 옷을 나무에 가리개로 걸어놓고 원효를 낳았습니다. 하여 그 나무를 사라수(娑羅樹)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석가모니부처님의 어머니 마야부인은 몸을 풀기 위해 친정으로 가던 중 릉비니동산 무우수나무 가지를 잡고 무우수나무 아래서 씻달타를 낳았다고 했지요!

이때가 진평왕 39년 서기 617년 정축년이었습니다. 오색구름이 땅을 덮었다고 합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스승을 좇지 않고 스스로 세상을 떠돌며 스스로의 길에서 도를 닦았습니다. 석가모니부처님도 스스로를 스승 삼고 정진했습니다. 648년(진덕여왕 2년) 황룡사에서 스님이 되었습니다. 각종 불전을 섭렵하며 수도에 정진하였습니다. 650년(진덕여왕 4년) 의상과 함께 해로를 통하여 당나라의 현장법사와 규기대사에게 유식학을 배우려고 요동까지 갔지만, 그곳 순라군에게 첩자로 몰려 여러 날 갇혀 있다가 겨우 풀려 돌아왔습니다. 그 후 10년 뒤 다시 원효는 자기보다 10세나 연하인 의상(義湘)과 같이 중국 당나라로 유학길에 오릅니다.

이 두 번째 구도 길에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설화를 만납니다. 해골물!

☞ 해골물

경주를 떠나 강주(수원) 남양(南陽) 해안에 이르러서 날이 저물었습니다. 날은 굵어 소낙비가 쏟아지고 더욱 컴컴해졌습니다. 그들은 비를 피하기 위하여 어떤 움집으로 들어가 하룻밤을 지새우기로 하였습니다. 한밤중에 원효는 심한 갈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행여나 하여 주위를 더듬거려 보니 손끝에 물이 담긴 그릇이 닿았습니다. 그는 황급히 물을 마시고는 계속하여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날이 활짝 밝자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움집이라 여겼던 곳은 고총(古塚)이었고 그릇의 물은 해골에 고인 썩은 물이었습니다. 옛날 무덤은 지하실 같이 돌집을 짓고 방을 만들어 관을 넣고, 생시에 사용하던 물건을 넣어 두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그가 빗물이 고인 해골을 보니 그 속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벌레가 우글거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보자 심한 구토를 느껴 전날 먹은 음식까지 몽땅 토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원효는 이 고통 끝에 크나큰 진리를 발견하고 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곧 기신론(起信論)에서 본 법문이 되살아났습니다.

그 법문은, ‘한 생각이 일어나니 갖가지 마음이 일어나고, 한 생각이 사라지니 갖가지 마음이 사라진다. 여래께서 이르시되, 삼계가 허위이니 오직 마음만이 짓는 것이다[心生卽種種心生 心滅卽種種心滅 如來大師云 三界虛僞 唯心所作]’ 라고 한 것입니다.

사실 이 법문이 팔만대장경의 요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곧 마음에 대한 해석이 수많은 경전을 일관하는 사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체의 사상(事象)이 오직 이 마음의 분별에서 생긴 것이라고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불교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원효는 이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러자 원효는 미친 사람처럼 너털웃음을 웃고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고 다녔습니다. 의상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으나 원효는 빙긋거리기만 할 뿐 대답이 없다가, 드디어 의상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젯밤에 갈증이 나서, 무척 애쓰는 것을 보았는가?”

형님이 갈증으로 고생하다가 그릇의 물을 마시는 것을 보았지요”

“오늘 아침 일어나 보니 그것은 보통 물이 아니고, 사람의 해골에 고인 썩은 물이었다네. 어젯밤 그것을 마실 때는 그토록 시원하여 세상모르게 잠을 잤는

데, 오늘 아침 그것이 해골의 썩은 물이란 것을 발견하니 구토가 나서 큰 고생을 하였다네. 밤중의 마음과 아침의 내 마음이 다르지 않을 터인데, 모를 때는 시원하던 것이 알고 나서는 기분이 좋지 않으니, 더럽고 깨끗한 것이 사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드는 것[一切唯心造] 이라고 이제 깨달았다네.

화엄경에도, ‘온갖 법은 분별에서 생기고 또한 거꾸로 분별을 따라 사라지니, 온갖 분별하는 법을 꺼 버리면 이 법은 생멸이 아니로세[法從分別性 還從分別滅 滅諸分別法 是法非生滅]’ 라고 하지 않았는가. 나는 진리를 깨달았기에 즐거운 마음을 이길 길이 없네. 그러니 내 어찌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지 않겠는가?” 그러나 의상은 원효의 말이 그럴듯하게는 들려도 납득이 가지 않았다.

우리도 법문 들을 때, ‘아, 그래! 그렇지 아무렴!’ 하지만 진실로 원효대사처럼 섭수했던가 돌이켜 참회합니다. 나무! 합니다.

이와 같은 계기를 통해 삼계유심(三界唯心)을 깨달은 원효대사는 굳이 멀리 당나라까지 들어가 법을 물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법회의 법우님들도 법문을 통해 이미 부처님생명으로 살려진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감사할 뿐입니다. 감사의 공양을 올리려 법당에 옵니다. 도량을 찾아 여기저기 산전을 헤맬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여 염불 중—

* 법회 봉행과 일상 수행정진 할 때 모시는 ‘법회 발원문’ 을 소개합니다.

가정 발원문

나의 참생명 부처님생명!

나는 우리집을 사랑합니다.

우리 가족이 사는 이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설계자로부터 이름 모를 인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들의 땀과 꿈이 모여 이루어진 곳입니다.

때문에 이 집은 단순히 돈으로 거래한 물질이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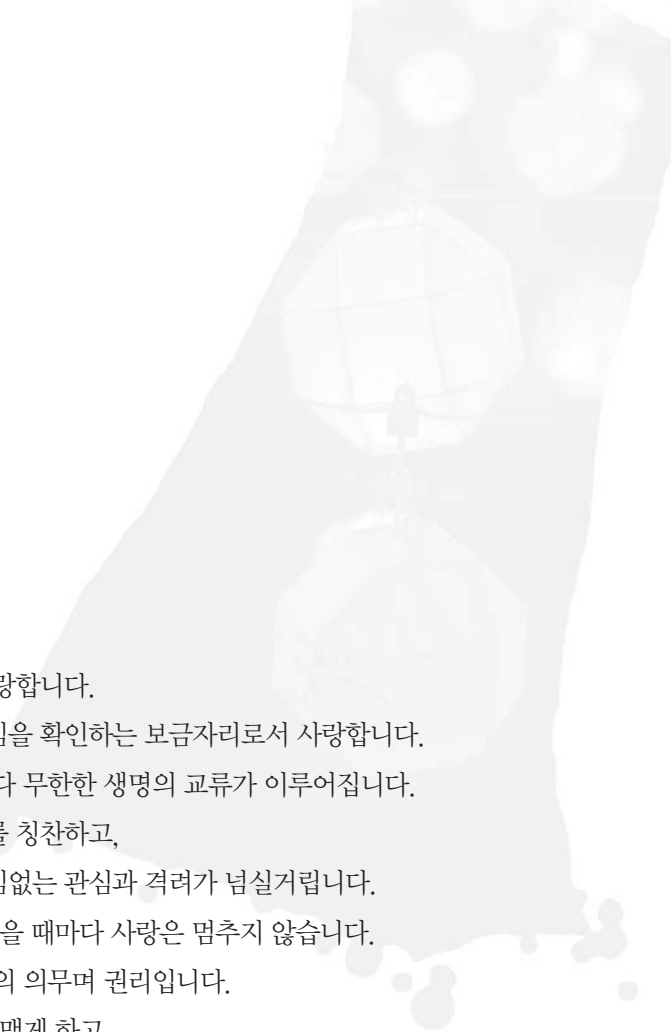
우리 가족의 나날은

서로를 살려주는 생명의 법칙에 따릅니다.

따라서 이 집은

우리 가족의 생명활동이 시작되는 곳이며,

휴식을 통하여 생명에너지를 충전하는 곳입니다.



나는 우리집을 사랑합니다.
가족들이 한생명임을 확인하는 보금자리로서 사랑합니다.
현관문을 열 때마다 무한한 생명의 교류가 이루어집니다.
거실에서는 서로를 칭찬하고,
잠자리에서는 끊임없는 관심과 격려가 넘실거립니다.
이 집에서 인연 지을 때마다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는 모든 가족들의 의무며 권리입니다.
이런 좋은 인연을 맺게 하고
언제나 살려주고 계시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기쁨을 베풀겠습니다.

밝고 맑게

성원(性願) 박부현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아미타의 아이들 법회가 10년째를 맞았다니
참으로 놀랍고 대견하기 그지없습니다.
항상 밝고 맑게 성장하기를 축원하고 있지만
탄생 10년을 맞이하니, 선배 법우로서,
어른 법우로서 어떻게 모범을 보이며 살고 있나 생각하게 합니다.
가끔은 아미타의 아이들을 보면서
배우는 게 더 많다 싶을 때가 있으니 말입니다.

아미타의 아이들 법회의 슬로건인
“나누면서 칭찬하고, 도우면서 감사하자!” 는
아낌없이 나누는 보시(布施)를,
진심으로 찬탄하고 칭찬하는 애어(愛語)를,
타인을 이롭게 하는 이행(利行)을,
기쁨도 고통도 함께 나누는 동사(同事)를 말합니다.



나란 존재는
공양 받아 살려지고 있으므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나누지 않을 수 없고,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타인을 이롭게 하는 보살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며
적극적으로 참생명의 가치를 빛내야 한다는
자각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공양 받아 살려짐에
공양 올려 감사함을 드러냄이
불자로서의 행이며 공덕이지 않겠습니까!
공덕의 원력 속에 아미타의 아이들처럼
매일매일 함께 자라고 싶습니다.
나무아미타불.

* ‘아미타의 아이들 창립 10주년 기념법회’ 를 모시며 「나누면서 칭찬하고
도우면서 감사하네!」 라는 법문을 듣고, 그 감흥을 함께 나눕니다.

푸른 하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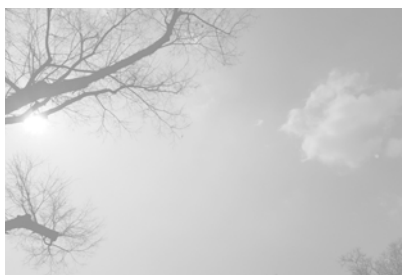
신재(信智) 김동숙

참으로 오랜만에
푸른 하늘을 봅니다.



구름이 정겹네요~

그리고 보니
태양도 오~~~랜만인 듯... ㅎㅎㅎ



참 묘~합니다!

푸른 하늘에 반해 사진을 찍었는데,

찍힌 사진을 보니

사진마다 구름이 주인공인 듯 딱하니 자리하고 있네요.

구름은 어찌 보면 경계일 터인데...

살다 보니 그렇습니다.

경계 덕분에 법문이 들리고,

경계 덕분에 정진합니다.

사바세계에 살고 있음을 알려주는 듯...

그런데,

구름이 싫다면 구름 없는 사진을 찍었을 텐데...

왜 구름을 넣었을까요?

왜 구름이 있는 사진이 더 멋져 보일까요?

오호~~~

유어사바세계!

나무아미타불!

다만 오직,

나무! 아미타불~_()_

지금 할 수 있는 일

법사님 읽어보세요^^

추위가 가시지 않은 이른 2월의 봄, 먼저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보내주신 편지와 정진용으로 함께 주신 『금강경 법문』을 읽고, 그 감사함에 깊이 고개를 숙입니다.

여러 제한적인 이곳 환경을 망각하고, 제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는 편지를 드려 죄송합니다.

마음 써주신 덕분에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배려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무지하지만 지은 죄를 진심으로 참회하고, 남은 삶 흠어머니를 부처님처럼 모시며 살고자 합니다.

힘든 생활이지만 남은 복역기간 불·법·승 삼보에 의지하며, 보내주신 책을 자주 읽고, 깊이 생각하고, 실천하는 ‘문사수’ 정신으로 더욱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인연으로 문사수법회에서 하시는 모든 일에 부처님의 크신 광영이 깃드시길 늘 기도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소서...

2019년 2월

광주 옥담에서 ○○○ 합장

○○○ 법우님께

안녕하세요?

법회로 보내주신 편지 잘 받아 보았습니다.

법우님께서 법회에서 발간하는 월간 신앙지 ‘진리의 빛, 법우’를 통해 꾸준히 공부하고 계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힘든 여건에서도 발심하시고 정진하시는 법우님을 찬탄합니다.

한층 더 심도 있는 공부를 하시고자 문사수 경전학당의 통신반 공부에 대한 뜻을 밝히셨는데, 안타깝지만 교도소에서 통신반 공부는 불가능합니다. 통신반 과정은 동영상을 통해 진행되는 공부인데, 교도소에서는 외부에서 제공되는 동영상을 시청할 수 없습니다. 법우님도 이러한 규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법회에서 법우님의 정진을 위해 도움을 드린다면, 출판물을 제공해 드리는 것 이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기에, 『금강경 법문』이라는 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강경 법문』을 수시로 읽어보시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聞], 스스로의 삶에 비추어[思], 삶을 수정해 가는[修] 문사수(聞思修)의 정진을 통해 날마다 밝아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문사수 경전학당에서 합장

* 법우지에 실린 문사수 경전학당 경전강좌 안내를 보고, 공부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담아 보내온 편지에 대한 법회의 답신과, 그 답신에 고마움을 전하며 다시 보내온 글입니다~♡

듣기 위해서는 먼저 물음이 있어야 합니다. 부처님 전에 나아가 생명의 근원자리에 대한 절실하고 사무치는 물음을 내놓는 청법자들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경전이 있는 것입니다. 물음이 물음다울 때 진정한 법문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코너는 『문사수 법요집』에 실려 있는 ‘염불 문답’입니다. 새삼 새기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Q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생활 속에서 염불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A 남편의 귀가를 기다리고 있는 어느 가정주부를 떠올려 봅시다. 인터폰 소리가 울리면서 남편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두 말없이 반갑게 문을 엽니다. 화면에 등장했던 남편은 본체만체하면서 현관으로 달려갑니다.

자, 그럼 잠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문 앞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은 진정 남편의 실상일까? 물론 남편이라고 의심치 않으니까 문을 열겠지만 뭔가 미심쩍습니다. 몇 초 전까지만 해도 카메라의 눈을 통해 화면에 비친 사람을 남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화면에 나타났던 남편은 어디로 갔단 말인가? 인터폰의 수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남편은 사라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자신의 눈을 통해 보이는 사람이 남편이라는 확실한 증거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육체를 남편이라고 한다면, 어떤 부위가 남편의 실체인가? 얼굴인가?

얼굴인 듯하지만, 눈이 있고 귀가 달려 있습니다. 또 팔다리를 휘젓습니다.

팔다리인 듯하지만, 묵직한 몸통도 있습니다. 몸통인 듯하지만, 뻗뻗한 등이

있고 불룩한 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 내장도 있습니다. 심장도 있고 간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무리 육체를 해부해 보아도 남편의 실체를 찾지 못합니다. 남편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남편만이 아닙니다. 모든 생명이 드러나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일상 속에서 우리는 육체와 같이, 참으로는 있지 않은 것을 있다고 주장하기에 바쁩니다. 허리를 꼴꼴이 세우고 배를 불쑥 내밀면서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세계를 참으로 있다고 믿고 있는 한, 생사(生死)의 문제는 언제까지나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 식으로 사는 것만을 자랑하기에 다른 생명과 대립한 세계에 살게 되고, 부조화에 의한 갈등을 양산할 따름이지요. 생명을 육체로만 한정시키니 생명의 교류가 가능할 턱이 없습니다. 이런 상태가 흔히 말하는 불행의 속 내용입니다.

만일 우리가 참생명의 법칙에 따르지 않는다면, 자신이 선택한 틀에 갇혀 스스로 파멸할 뿐입니다.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막상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고 말입니다.

자승자박(自繩自縛)이란 말이 생긴 이유를 알 법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은 틀 속에 갇혀 자기만을 주장하다가, 어쩔 수 없이 죽어야 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의 모든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인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만물은 언제나 새롭게 태어나고 있

습니다. 자기의 틀 속에 갇힌 사람만이 그것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세상에 죽음으로 귀결되는 생명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항상 새로운 생명이기에 남들의 대접을 누리고 있을 틈이 없습니다.

다른 생명을 구속하고 있을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상 속에서 염불(念佛)한다는 것은, 자기로 모아진 유일한 생명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오로지 완전하고도 꼭 채워진 무한생명 무한광명 즉 아미타불로 살기 위해서 다만 ‘나무(南無)’ 할 뿐입니다.



편집후기

진눈깨비 날리는 봄날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따사로운 햇볕도 마주합니다. 한자리에 앉아서 마주하는 봄날의 변화, 그대로입니다. 부처님께서 라홀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라홀라야, 더욱 중요한 것은 오늘 들어 안 것을 내일도 또 다음 날도 잊지 않는 것이다. 라홀라야, 거울의 용도를 아느냐?” 고 물으시니, 라홀라가 대답합니다. 비추어 보는 것이라고요.

이어 부처님께서 따뜻한 법문을 주십니다. “그렇다. 거울을 보듯이 쉬지 않고 자신을 반조하면서 행동해야 하고, 말을 해야 하며, 생각해야 한다. 라홀라야, 행동이 청정했고, 말이 청정했고, 생각이 청정했던 과거세의 선지식들은 모두 이와 같이 계속해서 반조함에 의해 행동과 말과 생각이 청정했다. 그러므로 너도 그와 같이하여라” 거울을 보듯이 쉬지 않고 자신을 반조해야 한다고 하신 부처님의 말씀을 변화하는 날씨를 마주하며 떠올렸습니다.

잠시도 머물 수 없는 온 세상 만물의 생명력은 그대로가 다 부처님의 가피이며, 드러난 모습은 그대로가 다 공양입니다. 공양 중의 최고의 공양이 법공양(法供養)이라고 배웠습니다. 법은 우리의 참생명을 뜻합니다. 모습이나 놓여있는 환경에 구애 없이 드러나는 그대로 빨강 꽃, 흰 꽃, 파랑 꽃으로 크든 작든, 구석이든 중앙이든 몽땅 봄날의 따뜻한 빛을 받아 드러난 것이니 다 감사한 일입니다. 빛을 받아 태어난 모든 것은, 환영의 모습까지도 어



느 것 하나 헛됨이 없어 보입니다.

이 글을 쓰는 중에 깨었던 하늘에서 다시 비가 내리고 어두워집니다. 그래도 그대로 좋습니다. 환한 것과 어두운 것을 번갈아 마주하며 내 삶을 돌아 봅니다. 밝음만을 추구한다면, 어둠을 멀리한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삶이지 않을까 하고요. 이분법의 세계가 모여서 한세상이 완성된다면, 나와 너로 구분되지 않는 삶이라면, 돌아보며 반추할 그 무엇이 없다면? 어쩌면 진정한 나를 마주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모순된 내가 없다면, 그렇다면 너를 만날 수 없으니, 그것이 진정한 슬픔[悲心]이지 않을까요.

이달 작업을 하면서 보시(布施)에 대한 생각을 유난히 많이 했습니다. 진정한 보시란 무엇인지, 법문을 되새기며 이리저리 고민하다 법사님께 여쭙니, ‘보시란, 나와 너가 한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비가 그치고 날이 환해집니다. 다만 함장하며 부처님생명에 귀의합니다. 나무!

감사합니다.
회향실에서 유원 합장

2019년 전수염불 안내

精進院 專修念佛

정진원 전수염불

전수염불은,
염불수행에 대한 안내는 받았으나,
실제로 경험이 없는 초심자에게
부처님의 세계로 들어오는 통로가 될 것이며,
정진을 지속적으로 한 법우님을 위해서는,
염불수행에 대한 체득화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원력 믿고 염불하여 성불한다!’ 는 모토 아래,
다만 오직 나무아미타불! 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 2019년 일정

4차 : 4월 27일(토)
5차 : 6월 22일(토)~23일(일) 6차 : 7월 27일(토)
7차 : 8월 24일(토) 8차 : 10월 26일(토)
9차 : 11월 23일(토) 10차 : 12월 28일(토)
입재 토요일 오후 3시, 최소 30분 전 도착, 입재 후에는 동참 불가

▶ 참가대상_제한없음

▶ 접수안내

- 신청서 작성(전화 또는 내방) 후 종무실에 제출
- 선착순 접수, 회당 20명으로 제한
- 감사헌공을 올립니다.

▶ 준비물_정진모시기 편한 옷

▶ 문의

문사수법회 정진원 · 정토사

주소 : 전남 담양군 담양읍 깊은실길 112(학동2리 492-1)

전화 : 061)381-0108 팩스 : 061)381-5467

2019 문사수 해외구도여행

태국, 캄보디아

불교가 나라의 법이고,
불법과 함께 살아가는 현세의 불국토 태국!
현재의 태국을 만든 고대불교왕국 아유타야,
수코타이 왕국.
과거 동남아를 호령하는 불국토를 만들어
위세를 떨친 크메르왕국의 앙코르와트.
세계문화유산으로 증명된 과거의 불국토에서
현재의 불국토의 삶을 볼 수 있는,
동남아불교문화의 정수인 태국과 캄보디아로
범우님을 모십니다.

- 일 시 : 2020년 2월 5일(수) ~ 11(화) 5박7일
(이른 아침 비행기로 출국해서 밤비행기 타고 새벽에 도착하므로
딱찬 6일을 여행하는 알짜배기 일정입니다^^)
- 코 스 : 태국 수코타이/아유타야/방콕, 캄보디아 시엠립 앙코르와트
- 동 참 비 : 240만원(예정) _ 구도여행단 가입회원만 신청가능
- 신청기간 : 1차마감 2019년 6월 30일(예약금 30만원 입금 시 신청완료)
- 입금계좌 : 국민은행 281901-04-067861 정경옥
- 회원가입 및 신청문의 : 구도여행단 단장 미락(010-8256-5703)
팀장 미탄(010-3385-2413)

문사수 구도여행단

전법용 소책자 ‘불교란?’

불자님들의 소중한 보시금으로 제작되어, 무료로 법보시되고 있는 ‘불교란?’ 소책자가 어느덧 6쇄 6만부가 발행되었습니다.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알리고자 문사수법회에서 기획 제작한 전법서로서, 요청하시면 언제든지 기쁘게 보내드리오니, ‘불교란?’을 통해 소중한 분들과 부처님 인연 맺으세요!



무료책자 신청 및 법보시 문의

031-966-3581, 010-2387-6305

• 전자책(e-book)으로 ‘불교란?’ 만나기

- 1) PC, 스마트폰, 태블릿 등으로 인터넷서점에 접속합니다.
(yes24, 교보문고, 영풍문고, 알라딘, 반디앤루니스, 리디북스)
- 2) 무료 전자책(e-book) 코너에서 ‘불교란?’을 검색하여 다운로드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 법보시 후원 동참 계좌 하나은행 292-910001-70804 (사)문사수불교문화원 국민은행 161601-04-001600 (사)문사수불교문화원

※ 법보시 후원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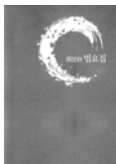
‘불교란?’을 통한 인연 이야기를 편집실로 보내주세요~! (msspub@munsasu.org)

문사수가 펴낸 책들



금강경 법문

대승불교로 들어서는 입문서, 지혜의 경전 '금강경'
한타법 법문, 여여 역음 | 483쪽
값 23,000원



문사수 법요집

불교신앙의 골공은 길잡이, 신앙의 나침반
여여 역음 | 899쪽
값 30,000원



정토예불문 강의

불자들의 신앙관을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교재
정신 지음 | 120쪽
값 3,000원

여여법사 법문 총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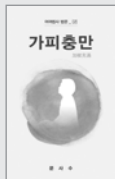
시절인연 1·2

월간 法友(법우) 권두언 법문 모음집
여여 지음 | 1권 221쪽 / 2권 218쪽(세트, 전2권)
값 15,000원(세트)



인생찬란

스스로의 생명가치를
찬탄하는 법문
여여 지음 | 276쪽
값 13,000원



가피충만

무한한 삶,
장엄의 기쁨을 누리는 법문
여여 지음 | 316쪽
값 13,000원



만남법문

지금 누구와 만나는지 돌아보는 법문
여여 지음 | 128쪽
값 3,000원

● 구입문의 : 문사수 법회 031)966-3581~2

※ 국내 유통 대형서점에서도 구입 가능합니다.



문사수법회 후원보시를 기다립니다

한국 불교의 위상이 미신과 기복으로 점철되고 있는 현실,
이는 ‘부처님의 바른 법’을 전함에 게을렀기에 발생하는
당연한 인과이겠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바른 법문’이 담긴 경전을 신앙하고,
그로부터 법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한국불교의 위상 정립은 물론이고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최선의 길이 될 것입니다.

문사수법회는 법회(法會: 법을 베푸는 모임)를 통한 전법불사(傳法佛事)에
신명을 바쳐 수행하기를 발원하였기에, 그 성취 또한 믿습니다.
이 큰 불사에 동참했고, 동참하고, 또 동참하실 시주님들께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함께 하심을 찬탄드립니다.

* 법회 후원 계좌

국민은행 517101-01-145737 (사)문사수불교문화원

※ 월간 법우(法友), 진리의 벗 정기구독 및 후원(법보시)은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기구독 및 후원 안내>의 전용 계좌와 CMS를 이용해주세요.^^



월간 진리의 벗, 법우 정기구독 및 후원 안내

월간 진리의 벗, 법우는

부처님 법을 세상에 전하는 전법사이며, 밝은 삶을 누리게 하는 신앙지입니다.

정기구독 신청방법

▶ 대표전화 : 031)966-3581~2, 010-2473-5997

▶ 팩 스 : 031)966-3584

▶ 이 메 일 : msspub@munsasu.org

▶ 우 편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무원로6 무원빌딩 8층
문사수법회

▶ 정기구독료 (1부 : 2,500원) 1년 : 30,000원

정기구독 및

법보시(후원) 계좌

• 국민은행 161601-04-002227 (사)문사수불교문화원

• 농 협 1103-01-035354 (사)문사수불교문화원

전국의 군부대, 교도소, 병원,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에 발행부수의 50% 이상을 무료 배포하고 있습니다. 법보시에 동참해주신 모든 법우님의 행복과 무한성취를 기원합니다.

〈CMS(자동이체) 후원 안내〉

자동이체를 통해 쉽고 간편한 방법으로 불법 흥포에 정기적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및 후원 보시금을 보내주신 분들을 찬탄드립니다! (2019년 2월 ~ 3월)

〈구독〉 권병학, 김석기, 김수정, 김원숙, 김은숙, 김인우, 김진경, 류상열, 민병직, 사유선, 서충녀, 송병춘, 안상준, 안은경, 오재숙, 유진옥, 이봉산, 이이조, 이재숙, 전경옥, 정민자, 정희석, 조준영, 채경은, 최정희, 허문선, 법우님

〈후원(법보시)〉 회주님, 여여법사, 정신법사, 명성법사, 범정법사, 범열법사, 범활법사, 중앙전법원, 대전전법원, 정진원, 강현자, 광인규, 구본현, 권병학, 김동숙, 김문희, 김석순, 김승경, 김양모, 김원숙, 김은숙, 김진경, 김추옥, 김혜숙, 김홍양, 남기정, 문현숙, 박명순, 박부현, 박안덕, 박정순, 박지영, 박진서, 서정숙, 손미홍, 손지원, 손지윤, 송병춘, 신숙자, 신재란, 심은희, 안은경, 양선옥, 예성불교, 오경숙, 오종만, 유진옥, 유현성, 이광식, 이덕수, 이미아, 이상백, 이성진, 이은미, 이이조, 이재화, 이종희, 이준일, 이현애, 임춘희, 전철균, 정경옥, 정민자, 정희석, 최광수, 최교준, 최동윤, 최동재, 최세현, 최승옥, 최옥임, 최정희, 최향순, 태창성, 한기묘 외 무기명 법우님 감사합니다.

* 보시명단에서 이름이 누락된 경우, 편집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사수 전법 네트워크

www.munsasu.org

“온 세상 불길 가득할지라도
뚫고가서 법문 들어라!”

『불설무량수경』

중앙전법원

[1052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무원로 6 무원빌딩 8층 (행신동 709-1)
전화 031)966-3581~2 팩스 031)966-3584

대중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경전학당 매주 화요일 오전반 10시 30분 / 저녁반 7시 30분

아미타의 아이들 법회 매월 2, 4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예불정진 새벽 5시, 오전 10시 30분, 저녁 6시

대전전법원

[34837]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37번길 43(중구 선화동 21-1)
전화 042)485-8111

대중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경전학당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예불정진 새벽 5시, 오전 10시 30분

정진원 · 정토사

[57351]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깊은실길 112 (학동2리 492-1)
전화 061)381-0108 팩스 061)381-5467

참생명 법회 매월 1, 3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초하루 · 보름 법회 오전 10시

전수염불 매월 4주 토요일 오후 3시

예불정진 새벽 5시, 오전 10시, 오후 5시 30분

※ 신앙상담의 문이 항상 열려있으니 인근 지역전법원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南 无 阿 彌 陀 佛

부처님의 원력 믿고
염불하여 성불한다

문사수_문수_수문_수수_문 우리의 참생명을 드러내게 하는 세 가지 지혜를 일컫습니다. 문해_문문해_수문해_수문해_수 사해_수사해_수수해_수수해_수 수해_수수해_수수해_수가 그것입니다.
즉,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문] 스스로를 비추어 보아[수] 자기 삶을 수정함으로써[수] 정토_수정토_수에 이르는 길입니다.

월간 진리의 빛, 법우 msspub@munsasu.org www.munsasu.org